



김연아 프로 전향 가능성

매니지먼트사 "3월 세계선수권대회는 출전"

‘괴계력’ 김연아(20·고려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곧바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지막으로 프로 무대 진출을 타진할 전망이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1일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결과와 상관 없이 오는 3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출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고 나서 프로로 전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IB스포츠는 김연아가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일정을 확인하면서 “올림픽 결과와 무관하게 세계선수권대회에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혀 왔으며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를 마친 뒤 대회에 나서 뜻을 굳혔다고 전했다.

IB스포츠는 이어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나중 일에 대해 앞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김연아도 은퇴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라며 “올림픽 결과에 따라 프로로 전향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직 향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올림픽을 앞두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완의 전술’ 스리백 재실험

허정무 오늘 밤 라트비아와 그리스전 2차 모의고사

한국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전지훈련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스리백(3-back) 수비라인을 재실험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1시10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말라가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에서 라트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라트비아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이 상대해야 할 그리스를 겨냥한 스파링 파트너이다. 허정무 감독은 이번 라트비아와 경기에서는 스리백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포메이션 및 전술에 변화를 줄 작정이다.

허 감독은 지난 18일 핀란드와 평가전에서 2-0 승리를 이끌고서 “전술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변화를 좀 줄 생각이 있다. 라트비아와 경기에서는 전형성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허 감독이 구상 중인 변화의 핵심은 스리백이었다.

허 감독은 21일 오전 스페인 마르베야 MPFS 훈련장에서 팀 훈련을 이끌고 나서 “이번에는 스리백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다. 양쪽 윙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역할,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의 역할 등을 선수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서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허 감독은 스페인으로 건너오기 전 남아공에서 모처럼 스리백 수비진을 실험했다. 지난 13일 남아공 프로팀인 플라티넵 스타스와 연습경기(0-0 무승부)에서 3-5-2의 익숙지 않은 전형을 꺼내 들었다. 유럽파가 이번 전지에 불참하면서 풀백 자원이 부족했고, 월드컵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허 감독의 설명이었다.

현재로서는 이정수(가시마)-조용현(제주)-강민수(수원)로 스리백 수비진을 꾸리고 좌·우 윙백에 박주호(이와타)와 오병석



(울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문은 만형 이문재(수원)가 지킨다.

최전방 투톱은 염기훈(울산)과 이동국(전북)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바탕이 된 3-4-3 포메이션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스리톱은 이동국을 정점으로 좌·우 윙 포워드도 염기훈과 노병준(포항)이 투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롤모델은 '스페인과 루니'

허정무호가 첫 걸음을 댄 2008년부터 대한축구협회에 한국축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경기 영상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A매치나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 등의 경기 영상을 구해 우리 선수 개개인에게 필요한 장면들만 추려낸 맞춤형 자료를 만들어 훈련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칭스태프가 원하는 장면은 어떤 것이 많고, 롤 모델은 어떤 선수들을 꼽았을까? 김세운 대표팀 비디오프로젝터 만든 영상 자료에는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우승할 때 치른 경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공격수 웨인 루니의 플레이 장면이 적지 않다고 한다.

스페인 대표팀이나 루니 모두 선수 전반기 움직임이 좋다는 것이 이유다. /연합뉴스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부상 등 시련을 이겨내고 표현력을 거머쥔 매너 성장을 거듭해 온 김연아는 지난해 2월 열린 4대륙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그랑프리 시리즈, 그랑프리 파이널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며 여자 피겨계의 독보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열린 세계선수권은 여자 신체점제(뉴저지시스템) 도입 이후 여자 싱글 최초로 200점을 넘어선 207.71점으로 우승해 김연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됐던 만큼 오는 3월에도 최고의 연기를 펼쳐 2연패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연합뉴스



설원의 질주

21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프리 15km 경기에서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준길(하이원)이 설원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서 고교축구 최강 가린다

내일 백운기 축구대회 개막

전국 고교축구의 최강을 가린다.

제12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23일부터 11일간 광양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32개팀이 참가해 예선전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 경기 백안고를 비롯해 인천 부평고·서울 중경고·전북 이리고·제주 제일고 등 전국의 우승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투게 된다.

광양시는 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음료수 제공과 청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15여여인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팔꿈치 통증’ 이용대 혼복 기권

말레이시아오픈 배드민턴

말레이시아오픈 배드민턴슈퍼시리즈에 참가한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2·삼성전기)가 팔꿈치 통증이 악화해 혼합복식 경기를 포기했다.

이용대는 21일 오후 대회 16강 경기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오른쪽 팔꿈치가 아픈데다 발바닥에 물집까지 생겨 경기를 기권했다. /연합뉴스

이용대는 작년 8월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찢어졌다. 이후 재활을 거쳐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만, 통증이 완전히 낫지는 않은 상태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한 관계자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권을 결정했다”며 “이용대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성 검사센터 건립을”

국제올림픽위원회 권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 정체성 논란을 빚는 선수들을 의욕적으로 진단할 ‘성 검사센터’ 설립을 권고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IOC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스포츠 의료 전문가 15명이 모인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어 주요 국제대회에서 불거지는 성별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8월 독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남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캐서린 세메냐(19) 사건 때문이다. /연합뉴스

아르네 욱크비스트 IOC 의무부과위원장은 그러나 세메냐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도 사건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온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르면 “뺏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국사주관? 우주의 현시를 풀이한 귀국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꼭을 하고도 망했다는 하여 부처진 귀국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초급	32부터 매주 화요일(15주)	(주)14~17시 (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심화	35부터 매주 금요일(15주)	(화)19~22시		
동강대학교	시주명리학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화)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1.29까지 등록시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1~2.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휴일 당일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에도~ 창고에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용 화물수송이 가능한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차 사용합니다
- 비 전기로 약 5,000원 정도 더 부담이 적음
- 충전식 배터리로 사용이 편리하고 소음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속의 수리를 인성적인 A/S가 가능합니다.

강기저라 농협용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보증,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속까지 40km/회(1회당 200kg)

일만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한라셀렉트(주)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제 사원 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제지	지목	면적(m²)	건평(m²)	최고가	비고
군립부림(광주·전남 지역)	부림	부림	287/827	1227㎡	791㎡	791㎡
	부림	부림	287/827	1227㎡	791㎡	791㎡
	부림	부림	287/827	1227㎡	791㎡	791㎡
	부림	부림	287/827	1227㎡	791㎡	791㎡